학교 안전사고 '학생 탓' 전가

광주 지난해 1,555건 … 79% "학생 부주의" 보고

모 중학교 발목 부러진 여중생 1시간 방치하기도

광주 H중학교 2학년생인 J양은 최근 학교에서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고도 1시간이나 방치돼 고통을 겪어야 했다.

J양은 지난 22일 점심식사 후 학교 급식실 앞 빙판길에서 넘어져 발목뼈가 3곳이나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친구의 등에 업혀 과학실로 옮겨진 장양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주변에 있던 교사에게 '119 응급구조차'를 불러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단순한 발목 골절로 보인다는 게 그 이유였다.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담임교사는 J양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 모 병원으로 학생을 이송할 테니 병원으로 와달라고 했다가, 다시 학교에 중요한 일이 있다며 학교로 와 달라고 말을 바꿨다. J양의 담임교사가 말한 중요한 일은 자신이 맡고 있는 반 학생이 분실한 MP3 플레이어를 찾는 것이었다.

J양은 결국 사고 발생 뒤 1시간여 만에 부모를 만나 병원으로 옮겨졌고, 2시간에 걸쳐 발목에 철심 등을 박는 수술을 받았다.

J양의 아버지는 "학교측의 방치로 딸이 한 시간이 넘도록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치민다"면서 "더욱 화나는 것은 담임교사의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식의 무관심한 태도"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학교 교장은 "임용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여교사(담임)의 경험 미숙으로 사고 후 조치가 미흡했던 것 같다. 특히 반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 수술을 했는데도, 문병 한번 가지 않았다고 해 크게 꾸짖었다"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J양의 사례처럼 광주지역 초·중·고교에서 학교안전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고를 학생의 책임으로 떠넘기는가하면 사고 후 응급 조치 미흡으로 학생이 고통을 겪는 등 학교 측의 안전사고 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서울 중랑갑)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는 2006년 1천 350건에서 2008년 1천555건으로 15.2%가 증가했다. 2008년 한해에만 사고 보상금으로 지급된 액수는 5억7천만원에 이른다.

각 학교에서 제출한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학생의 부주의가 1천226건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아예없고, '학생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것이다.

유정현 의원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대별로 학교 당국의 관리 강화와 함께 사고 발생 후 빠른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안전교육 독립 교과를 개발해 의무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은 정규 수업 시간에 배정하고 교사들에 대한 안전사고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겨울엔 역시 스케이트 27일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광주시 서구 염주실내체육관 빙상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미래 '경찰총수' 후보는?

고위직 인사 임박 … 치안정감 하마평 무성

호남 출신 모강인·유근섭·김남성 거론 '관심'

내년 초로 예정된 경찰 고위직 인사가 임박해지면서 미래의 '경찰총수' 후보가 될 치안정감 자리를 놓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희락 경찰청장(치안총감)은 내년 1월 초 경찰 고위직의 승진·보직 인사를 단행하는 등 내년 초 모든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치안정감의 경우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라는 점에서 4개의 치안정감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하마평이 무성하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 한 명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현 치안정감은 화순 출신인 최병민(57) 본청 차장과 주상용(57) 서울경찰청장, 조현오(54) 경기경찰청장, 김정식(54) 경찰대학장 등 4명이다. 이들은 이번 인사에서 모두 퇴임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1~2명 정도는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다른 자리로의 수평이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현 치안정감들의 용퇴 규모가 클 경우 승진 기회를 잡으려는 현 치안감들의 물밑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치안감 가운데 승진 가능성이 점쳐지는 인사는 경찰대 1기인 이강덕(48·경북 포항) 대통령실 치안비서관과 윤재옥(48·경남 합천) 경찰청 정보국장이 거론되고 있다.

호남권 인사 중에는 함평 출신인 모강인(52) 인천경찰청장과 유근섭(55·전북 남원) 전남경찰청장, 김남성(53·전북 고창) 광주경찰청장 등이 치안정감 승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한편 경찰청은 내년 2월까지 중·하위직을 포함한 모든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치안정감은 물론, 치안감과 경무관, 총경 등의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에도 시선이 쏠린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3월 장성 출신의 이송범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과 손창완 서울경찰청 차장 등 11명을 치안감으로 승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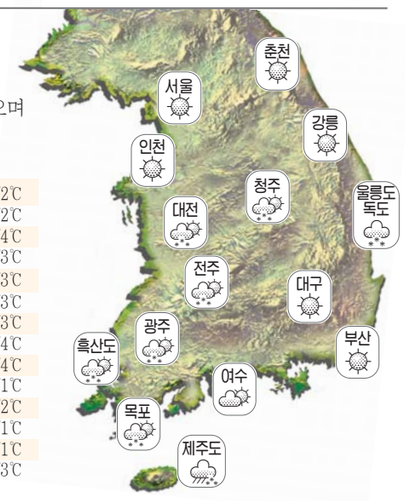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뜸 07시 40분 해짐 03시 58분 달뜸 17시 28분 달짐 03시 40분

안전운전 하세요

흐리고 눈이 온 뒤 개겠으며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다.



광 주	눈온뒤 갬	−3/2℃
목 포	눈온뒤 갬	−1/2℃
여 수	흐린뒤 맑음	−2/4℃
완 도	눈온뒤 갬	−2/3℃
구 례	눈온뒤 갬	−3/3℃
해 남	눈온뒤 갬	−3/3℃
장 흥	눈온뒤 갬	−3/3℃
고 흥	흐린뒤 맑음	−4/4℃
순 천	흐린뒤 맑음	−3/4℃
영 광	눈온뒤 갬	−3/1℃
진 도	눈온뒤 갬	−1/2℃
전 주	눈온뒤 갬	−5/1℃
남 원	눈온뒤 갬	−8/1℃
흑산도	눈온뒤 갬	1/3℃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2.0~3.0m
먼바다	서~북서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5~2.5m
먼바다	서~북서	2.0~4.0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먼바다	서~북서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먼바다	서~북서	1.0~2.0m

	밀물	썰물
목포	11:04 23:05	03:47 16:51
여수	06:20 18:23	12:30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9(화)	30(수)	31(목)	1/1(금)	2(토)	3(일)
날 씨						
최저/최고	−6/4	−1/2	−4/2	−4/4	−2/3	−4/3

관람객 15명 승강기 갇혀 '영화같은 공포의 25분'

어제 광주 치평동 … 119 구조대 출동

광주의 한 대형 극장에서 관람객 15명이 승강기에 갇히는 소동이 벌어졌다.

27일 광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5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C영화관 6층에서 승강기 문이 닫힌 뒤 멈춰섰으나 신고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비상열쇠를 이용해 25분 만에 승강기 문을 열어 관람객 15명을 무사히 구조했다.

성탄절 연휴를 맞아 어린이와 함께 극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극장 측의 부실한 안전관리에 항의하기도 했다.

C영화관 관계자는 '정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승객의 움직임이 심하거나 한쪽으로 무게가 치우치면 승강기가 멈춰 설 수 있다"며 "환불 등 조치 없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양해를 얻어 관람객을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소방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 소송' 갈등

전남 200여명 불참… "상부 압력" 진정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과 관련, 전남지역 소방관들이 상부의 소송 취하 압력 여부를 놓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27일 광주·전남 소방공무원들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 소송'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은 광주 560여명, 전남 1천10여명 등 모두 1천57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전남 소방공무원 200여명이 최근 소송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의 소송 불참에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승진,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한 상부의 면담과 회유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소방발전협의회 측은 "소송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부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한 데 이어 28일께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또 광주 소방공무원들도 소송 참여자 대표와 소방 관계자들이 모여 '제소 전 화해 방안' 논의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 시민단체 '회고와 전망' 송년 토론 한마당

(사)광주NGO시민재단과 (사)광주연구소는 29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NGO센터에서 송년 한마당을 개최한다.

'회고와 전망'이라는 부제를 단 송년 한마당에는 다양한 토론, 덕담 나누기와 함께 만찬도 준비된다.

토론 주제는 '2010년 시민사회운동'과 '5·18 30주년 준비와 과제' '2010년 지방선거' '지역복지와 공익활동' 등이다.

주요 발제자는 최영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와 조영임 광주여성민우회 대표, 허달용 5·18 30주년 행사 기획단장 등이다.

(사)광주NGO시민재단 관계자는 "지역사회가 내부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의 한계를 체감했던 한해를 돌아보고, 지방선거와 5·18 30주년 등 굵직한 행사가 예정된 2010년을 준비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